

출판의 성聖과 속俗을 잇는 사람

도도는 14세기 프랑스에 실존했던 성인이다. 이 가톨릭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갖고 있는 장석훈 씨는 책의 의미를 붙여 붙여 옛말인 '부갱 Bouquins'이라는 단어가 더해진 '도도부갱'이라는 프랑스 출판계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운영자이고, 궁리출판사 기획위원이자 번역가이다.

“출판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기획번역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석봉 씨 때문입니다. 장석봉 씨가 책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 서로 소개시켜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갑수 궁리 사장님, 예전에 민음사 국장님이셨던 분도 소개 받았지요. 현재 궁리닷컴도 장석봉 씨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만든 도도부갱은 궁리닷컴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장석봉 씨와 절 형제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궁리닷컴과 궁리출판사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출판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표정훈 씨가 (지금처럼 바쁘지 않을 때) PC방에서 밤부터 새벽까지 서핑을 해서 자료로 취합하고 그걸 런칭시킨 게 현재의 궁리닷컴이다. 사실 궁리출판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궁리 대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궁리닷컴은 포털 사이트라 링크 역할이

크다. 출판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의 관문 역할을 해주길 바란 작업자들의 의지와 노고가 돋보일 수밖에 없다.

“표정훈의 개인 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면서 포털 개념으로 간 거지요. 궁리에는 여러 젊은 기획자가 관여하고 있어서 뭘 하나 궁금하신지 두세 번 취재를 왔어요. 저희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은 장석봉, 다른 한쪽은 민음사 쪽 인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장석훈 씨는 프랑스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1년 여 동안 <출판저널>의 해외통신원으로도 활동했다. 개인

적 관심 때문이라도 자료를 모으던 입장인데, <출판저널> 일을 계기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글을 써야 하는 입장이 되니 좋을 수밖에. 이 밖에도 <이주향의 책마을 산책> 패널로 활동하면서 서양고전을 소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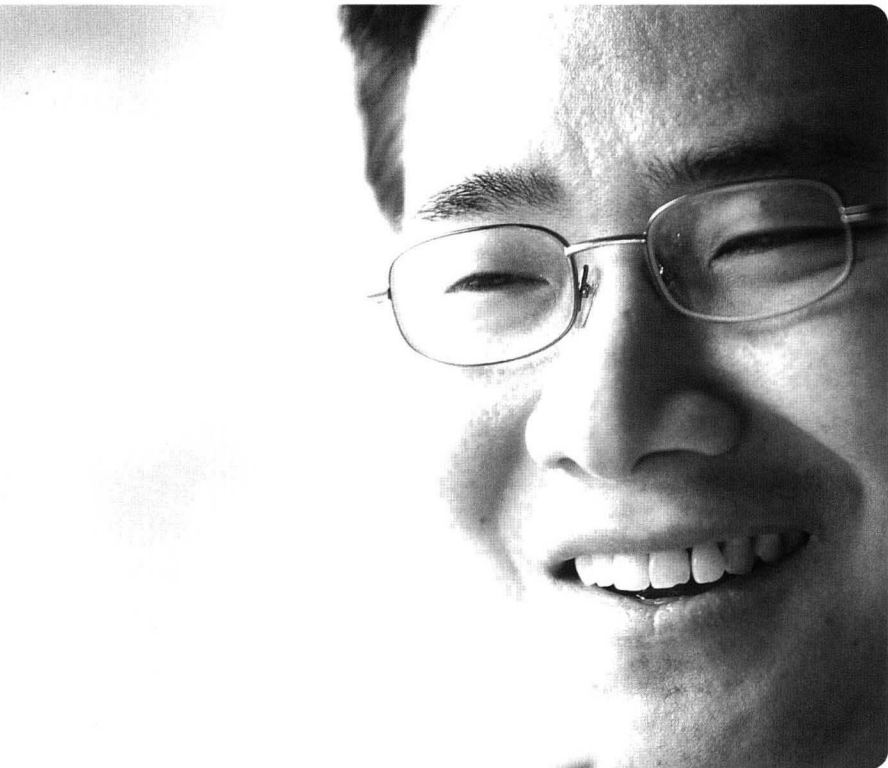
“1999년 말에 출판계에 들어왔어요. 저 스스로도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주어져 놀라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권 전공자들은 많지만 번역자들은 많지 않아요. ‘책’을 소화하고 출판마인드까지 겸비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그만큼 적다는 건데, 사실 책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곧바로 책의 질로 연결되니까요. 번역 인력 문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번역가는 일반번역가, 전문번역가, 기획번역가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전문번역가는 번역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만큼의 책임성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기획번역가는 스스로 책을 고르고 출간 여부를 출판사에 타진한 다음 출판의



방향을 잡아주면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석훈 씨는 기획번역가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소수. 그러다 보니 많은 일을 맡게 되고, 현재 그에게 맡겨진 책은 어린이책까지 30여 권 정도. 인문사회, 자연과학 시리즈, 철학 분야의 책을 주로 번역하고 있다. 요즘은 전공자가 워낙 적은 탓에 자연과학 분야의 책도 작업하고 있다.

“문학서적이나 동화 번역은 우리말 실력이 좋은 분들이 손대면 당연히 번역의 질도 좋은데, 자연과학 쪽 서적과 백과사전 번역은 우리말 실력이나 해당 외국어 실력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지요. 저도 백과사전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용어부터 손대야 할 게 많아요. 특히 어린이용 백과사전은 자국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출간하려고 보면 균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 조정해 주는 것도 큰 역할이지요. 이 작업을 출



판사에서 해주긴 어렵고 번역자가 해주어야 하는데, 웬만한 분들은 그냥 가거든요.”

어린이 백과사전류는 어린이책 시장 쪽에서는 일단 틀이 잡히면 단행본과는 다르게 안정된 수입원이라 여러 출판사에서 진행중이다.

“현재 20권짜리 백과사전을 맡아서 작업중인데, 몇 권은 직접 번역하고 전체 작업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책 시장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필자와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일하는 데 어려움이 간혹 있습니다.

최근 그는 그리스 로마신화 책들이 대거 출판된 것에도 아쉬움이 많다. 그리스 로마신화를 읽고 싶다는 사실 자체에는 동감하지만 책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급조된 느낌이 들고, 질적으로 비슷비슷한, 대동소이한 책들이 굳이 여러 권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저런 출판계의 문제나 발전을 위해 <출판저널> 같은 잡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의 출판잡지는 어떠한지

궁금했다.

“프랑스의 출판잡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술지 형태의 전문서평지, 일반독자를 주요 독자층으로 한 잡지, 기획자나 편집자가 직업활동을 위해 주로 보게 되는 잡지.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말 제호로 하자면 <문학잡지>, <독서>, <책> 이렇게 세 개의 잡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잡지>는 주로 서평위주입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 참조할 만한 수준의 글들이 실리는 잡지입니다. <출판저널>은 초반에는 출판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성격이 강했고, 복간된 2월호를 보니 일반인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군요.”

책이 좋아 시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더 내실 있게 잘해보자는 의욕하에 장석훈 씨는 이번 봄학기부터 서울대 비교문학 석사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판저널**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